

전국 > 제주

한전 제주본부, 카이스트 글로벌기술 센터·모던텍과 협약

강정만 기자 | kjm@newsis.com

등록 2018-03-28 15:45:03



【제주=뉴스시스】한전 제주본부(본부장 황우현), KAIST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센터장 최문기), 모던텍(대표 김성두) 관계자들이 대전 카이스트에서 ‘지능형 EV 충전시스템 해외 진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제주본부 제공>

【제주=뉴스시스】강정만 기자 = 한전 제주본부(본부장 황우현)는 28일 KAIST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센터장 최문기), 모던텍(대표 김성두)과 ‘지능형 EV 충전시스템 해외 진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전과 KAIST는 이번 협약에서 전기차 충전시스템 'iEV Station X'를 모던텍과 현지 여건에 맞도록 개선해 진출하기로 했다. ICE는 신재생 발전원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시스템 도입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해 11월 코스타리카 전력청과 스마트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LOI(Letter Of Intent)를 체결해 있다.

전기차 충전시스템 iEV Station X는 한전제주본부가 모던텍과 함께 개발해 지난 2월 준공한 급속과 완속 통합형 충전시스템이다.

1대의 마스터장치로 최대 50대까지 동시 충전 가능하고, 전력소비 75% 감소, 충전시간 30%를 단축할 수 있고 설치비용도 절반으로 줄인 획기적인 제품이다.

코스타리카 스마트 에너지 프로젝트는 발송배전 계통 최적화, 스마트 그리드 비즈-모델개발, ESS, EV 충전인프라 구축 등 중남미지역 전력계통 불안정성 해소와 스마트 시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사업이다.

한전 제주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 CFI 모델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코스타리카 전력청은 고객수 150만의 국영 전력통신공사로 캐리비안지역 전력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kjm@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